

資 料

用 里 詞 考

車 柱 環*

歷代文集을 涉獵하여 우리 先賢들의 詞作品을 索出 整理하는 作業을 한 바 있었다. 그 결과를 韓國詞文學研究라는 標題로 400餘首의 詞를 簡略한 解說을 곁들여서 亞細亞研究誌에 5次에 걸쳐 連載 紹介하였다. 그러한 索出作業은 아무래도 遺漏가 全無할 수는 없어서, 그 후에 새로 찾아낸 것들이 꽤 고이게 되었다. 그 중에서 李奎報의 詞作品은, 年代上으로 가장 이른 것이 되어, 白雲詞考라는 題下에 翻譯과 解說을 달아 本誌에 發表했다. 그 나머지의 것들 중에는 最近에 보게 된 高聖謙의 詞가 35首나 되어 作品數가 가장 많아 單獨으로 整理 紹介하기에 適合해서 그의 自號에 따라 그의 詞를 用里詞라고 命名해가지고 간단한 考察을 加해서 여기에 紹介하기로 한 것이다.

高聖謙(1810~1886)의 字는 釋希, 號는 用里(농리), 開城人으로 그의 詩文이 用里集 14卷 7冊(1896年 鑄印)으로 전해진다. 그는 少年時節부터 詩才가 뛰어나 널리 알려져는 바 되었으나 科試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의 나이 35歲 되던 해(1884)에 初試에 합격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그는 이어받은 遺産이 많아 裕足한 가운데에서 詩詞를 지으며 風流스러운 一生을 보낼 수 있었다. 그는 지금의 慶尙北道 聞慶에 있는 商山으로 불리우는 고장의 鹿門里라는 곳에 살았는데, 商山이라는

* 서울大 人文大學 教授(中國文學)

郷名과 중국의 商山四皓를 연결시키고 다시 鹿門里的 鹿里와 四皓 중의 用里先生의 用里와 音相似함을 취해 晩年에 用里라고 自號했다. 또 鹿門은 後漢末의 隱者 龐德公이 들어간 山 이름과도 같다. 자신의 德을 감추고 세상에 나가지 않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平生을 處士로 悠悠自適하게 살면서 晩年에는 商山 四皓의 한사람에 自比하고 지낸 것이다. 그는 臨終 때 과연 그의 子弟들에게 “나는 아무런 유감이 없다. (吾無憾焉)”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그의 詞作品은 用里集 卷4(12a~20b)에 樂府詞라는 大題下에 29調 35首가 收錄되어 있다. 提示된 詞調名과 作品數는 다음과 같다. (詞調名 뒤에 數字가 없는 것은 1首 씩이다.)

1. 浣溪沙 2. 憶王孫2 3. 南浦月 4. 如夢令2 5. 減字木蘭花 6. 烏夜啼
7. 人月圓 8. 碧雲深 9. 武陵春 10. 賀聖朝 11. 漁歌子 12. 少年遊 13. 鷓鴣天
14. 水調歌頭 15. 白蘋香 16. 望仙門 17. 江城子 18. 大江東去
19. 長相思 20. 蝶戀花 21. 千秋歲 22. 念奴嬌 23. 江南好 24. 南鄉子
25. 望秦川 26. 青玉案 27. 臨江仙 28. 望江南 29. 南柯子 30. 西江月
31. 定風波 32. 巫山一段雲 33. 風入松

이 가운데서 同調로 別稱을 使用한 것이 몇가지 있다. 그것을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15. 白蘋香 | → | 30. 西江月 |
| 18. 大江東去 | → | 22. 念奴嬌 |
| 23. 江南好 | → | 14. 水調歌頭 |
| 25. 望秦川 | → | 29. 南柯子 → 南歌子 |

그러므로 實地로 使用된 詞調는 29種이 된다. 이밖에도 다음과 같이 別稱을 使用한 것들이 있다.

- | | | |
|---------|---|-----|
| 3. 南浦月 | → | 點絳脣 |
| 8. 碧雲深 | → | 憶秦娥 |
| 20. 望江南 | → | 憶江南 |

詞調名 아래는 賞春, 春日晚眺, 春暮 등 副題를 달았고, 漁歌子の 경우에는 本意라하여 그것이 本意詞임을 밝히고 있다. 水調歌頭 이하 5調는 和贈黃聲汝라는 標題下에 묶었고, 贈黃聲汝의 標題下에 長相思 이하 3調, 다시 和贈黃聲汝의 標題下에 念奴嬌 이하 4調를 각각 묶었다. 따라서 用里詞 35首 중에서 12首는 黃聲汝의 詞에 和作하거나 그에게 贈呈한 것이다. 끝 부분인 靑玉案이하 8調는 玉淵諸勝이라는 標題로 묶었다. 이러한 따로 標題를 내세워서 묶은 것들에도 7首를 除外하고는 다 副題가 붙어 있다.

用里詞는 대체로 作詩技倆의 發揮가 支配的이고 熟達한 作詞家로서의 面貌를 그리 뚜렷하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아 詩人으로 詞를 試作해본 水準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韓國의 詞作品은 그 태반이 그러한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형편이므로 用里詞에서만 유독 그렇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無理한 일이라 하겠다. 韓國에서는 한사람이 35首에 달하는 詞作品을 남긴 例가 그리 흔하지 않으므로 用里詞는 오히려 韓國詞文學에서 차지하는 意義가 뚜렷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用里詞는 대체로 季節과 그것에 따른 景觀을 가려운 感慨를 곁들여서 써낸 것으로 그야말로 氣和音雅하고 情緻의 表露가 精妙한 편이다. 다음에 文集의 차례에 따라 每首에 句讀, 韻脚 및 段落을 表示하고 必要한 說明을 붙여서 韓國詞文學 研究를 위한 資料로 내놓기로 한다.

〔1〕浣溪沙

賞春

佳氣濃如琥珀盃。百花陰裏好亭臺。玉人春困夢初回。莫遣漁郎紅水去，恰如情友翠禽來。此間幽興有誰裁。

〔, 句; 、 讀; 。 韻。下同。〕

原文에는 前後段을 別行으로 하여 마치 2首같이 되어 있다. 雙調로 된 餘他の 詞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間或 前後段 사이에 1行을 잡고

“又”字를 써넣기도 했다. 雙調의 詞는 慣例的으로 前後段 사이에 空格 하나만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浣溪沙는 雙調 42字, 前段 3句 3平韻, 後段 3句 兩平韻의 體에 따른 것이다. 이 體는 결국 前後段이 각각 七言句 셋씩으로 되어 있어 外形上으로는 齊言體의 形式이 保存되어 있다. 다만 前後段이 각 3句씩으로 끝나 偶數句로 結束되는 齊言體詩의 경우보다는 含蓄된 情致를 짜넣을 수 있는 特徵이 있다. 後段 第2句의 “洽”은 “恰”의 誤字일 것이다. 佳氣와 百花에 玉人과 翠禽 등을 곁들여서 봄의 幽興을 써낸 것으로 詩의 경우보다는 情調가 훨씬 부드러운 편이라 하겠다.

[2] 憶王孫 二調 春日晚眺

春陰漠漠柳如絲。黃鳥雙雙啼上枝。永日無人問所思。午眠遲。寂歷江簾空自垂。

其二

東風剪剪日娟娟。野馬遊絲纈眼前。燕麥圍籬野色圓。碧連天。布穀鳥聲報有年。

이것은 2首가 다 單調 31字, 5句 5平韻體에 따른 것으로, 2首는 각각 다른 韻을 썼다. 이 單調의 憶王孫도 第4句의 三字句 이외에는 다 七言句로 되어 있어 長短句로서는 句調에 큰 變化가 없는 편에 속한다. 이 2首 역시 七言絶句의 手法이 살려져 있는 것을 感知하게 한다. 晚春을 背景으로한 生活이 裕足한 處士의 閑悠한 風貌가 나타내어져 있다.

[3] 南浦月 春暮

麗景如梭，眼看花片紛如雨。晚來推戶。無語雙梅樹。乳燕成雙，婉婉多情緒。時且去。更向那處。說與愁千縷。

南浦月은 點絳脣의 別稱으로, 이 詞는 雙調 41字, 前段 4句 3仄韻, 後段 5句 4仄韻體에 따른 것이다. 다음의 馮延巳의 蔭綠圍紅詞와 同韻同體인 것으로 보아 그것을 參考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點絳脣

馮延巳

蔭綠圍紅，飛瓊家在桃源住。畫橋當路。臨水開朱戶。柳逕春深，行到關情處。
顰不語。意憑風絮。吹向郎邊去。

點絳脣이 南浦月의 別稱을 갖게 된 것은 南宋의 張輯이 南浦月이라는 題下에 點絳脣의 詞調를 써서 來翦尊絲詞를 지어서부터이다. 張輯의 同詞 後段 末句는 “邀月過南浦”라 하여 역시 南浦月 3字가 들어 있다. (全宋詞 p. 2553 上段 參照.) 點絳脣은 詞家들이 愛用하는 詞調로 三·四·五·七言句가 뒤섞여 있어 長短句의 面貌를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 用里의 이 麗景如梭詞는 口頭語的인 表現도 導入되고 하여 비교적 조촐하게 다듬어진 편에 속한다. 情調는 憶王孫의 그것과 髣髴하나 春愁의 透露가 훨씬 뚜렷하다.

〔4〕如夢令 二調

惜春

欲挽殘春無路。謾把花枝柳絮。寄語采芳人，覓覓香魂何處。無據。無據。夫何曉來風雨。

其二

杜宇一聲春暮。萬樹飛紅如絮。陣陣晚飈寒，悄倚碧欄何處。知與。知與。東君去從何路。

이것은 如夢令의 單調 33字, 7句 5仄韻 1疊韻體에 따른 것이다. 詞調의 特徵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如夢令 2首는 詞의 特色이 비교적 잘 살려져 있다. “寄語采芳人”하고 “悄倚碧欄”하는 閒悠함 가운데서 “欲挽殘春無路” “東君去從何路”를 말해 사라지는 봄에 대한 아쉬움을 曲折을 지워 드러낸 것이다. 纏綿한 情致를 자아낼려고 試圖했음을 알게 하여 준다.

〔5〕減字木蘭花

曉起

良宵易曉。細月輕雲晴景好。香岫烟微。陣陣餘寒暗襲衣。韶光已去。春在依依

江上樹。何許紅娥。唱送東風山有花。

減字本欄花(略稱：減蘭)는 雙調 44字, 前後段 各4句 兩仄韻 兩平韻으로 되어 있다. 이 用里的 減蘭에도 平仄換韻格이 運用되어 있다. 이 良宵易曉詞는 視覺과 觸覺과 聽覺 세가지의 感觸이 다 다루어진 것이 特色이라 하겠다. 山有花는 이땅 特有的의 노래이므로 그것의 言及으로 地域性이 살려졌다고 하겠다. 春夏交替期를 背景으로 早朝의 快適함을 表露하고 있다.

[6] 烏夜啼

夜坐

遠寺鍾聲依約，小簾河影橫斜。爲裁春服誰家女。呼夏夜鳴梭。 離角何來流水，屋頭經宿明霞。臥聽山鳥時驚栖。應損晚開花。

이것은 烏夜啼의 雙調 48字, 前後段 各4句 兩平韻體에 따른 것으로, 다음의 北宋 趙令時的 樓上縈簾詞와 同韻同體이다.

烏夜啼

趙令時

樓上縈簾弱絮，牆頭礙月低花。年年春事關心事，腸斷欲棲鴉。 舞鏡鸞衾翠減，啼珠鳳蠟紅斜。重門不鎖相思夢，隨意繞天涯。

[7] 人月圓

感舊

悠悠往事都如夢，爭似酒三盃。且看洛城，桃花片片，飛去飛來。 歷數今古，平泉花石，金谷樓臺。聊將一道，清江流水，淘洗寒埃。

雙調 48字, 前段 5句 兩平韻, 後段 6句 兩平韻體다.

[8] 碧雲深

憶遠

人寂寞。繡簾搖漾東風惡。東風惡。朋酒邂逅，莫須花落。 一方秋水蒼葭陌。伊人不見音塵邈。音塵邈。謾將琴韻，一清看客。

이것은 憶秦娥의 雙調 46字, 前後段 各5句 3仄韻 1疊韻體에 따른 것

이다. 다음의 유명한 李白의 簫聲咽詞와 同體이고 이 用里詞는 그것을 參考한 痕跡이 있다.

憶秦娥

李白

簫聲咽。秦娥夢斷秦樓月。秦樓月。年年柳色，灞橋傷別。樂遊原上清秋節。咸陽古道音塵絕。音塵絕。西風殘照，漢家陵闕。

前出 張輯의 同詞에 “碧雲暮合”의 句가 있는 것에 따라 碧雲深이 憶秦娥의 別稱으로 쓰이게 되었다. 張詞는 다음과 같다.

碧雲深

寓憶秦娥

張輯

風淒淒。井闌絡緯驚秋啼。驚秋啼。涼侵好夢，月正樓西。捲簾望月知心誰。關河空隔長相思。長相思。碧雲暮合，有美人兮。

〔9〕 武陵春

恨別

立馬長亭行且發，殘日掛城頭。更把征衫欲小留。不語淚空流。聞道清江春水至，約束泛輕舟。却恐清江一片舟。載不得、萬重愁。

이것은 雙調 49字, 前後段 各4句 3平韻體에 따른 것이다. 바로 다음의 李清照의 유명한 風住塵香詞에 次韻한 것으로 情調도 비슷하고 같은 글자도 많다.

武陵春

李清照

風住塵香春已盡，日曉倦梳頭。物是人非事事休。欲語淚先流。聞說雙溪春尚好，也擬泛輕舟。只恐雙溪舴艋舟。載不動、許多愁。

〔10〕 賀聖朝

幽居

百方思量清閒住。儘莫如商飢。三停山色二停雲，更一停花樹。綠色青籟，斜風細雨。問從遊幾許。不教幽境世人知，信沙鷗無語。

雙調 49字, 前段 4句 3仄韻, 後段 5句 3仄韻體에 따른 것이다. 用里의

이 賀聖朝詞는 다음의 葉清臣의 滿斟綠醕詞를 依倣한 것이라 여겨진다.

賀聖朝

葉清臣

滿斟綠醕留君住。莫匆匆歸去。三分春色二分愁，更一分風雨。花開花謝，都來幾許。且高歌休訴。不知來歲牡丹時，再相逢何處。

[11] 漁歌子

本意

春山青，春水碧。東風搖漾木蘭船。草娟娟，蘆白白。艚外鴛鴦眠熟。露葭朝，煙渚夕。迴迴不見人叟邈。月盈湖，星滿磧。惟聞聲聲漁笛。

이 漁歌子は 雙調 50字, 前後段 各6句 4仄韻體에 따른 것이다. 다음 顧夔의 曉風清詞와 同體다.

漁歌子

顧夔

曉風清，幽沼綠。倚闌凝望珍禽浴。畫簾垂，翠屏曲。滿袖荷香馥郁。好據懷，堪寓目。身閒心靜平生足。酒杯深，光影促。名利無心較逐。

[12] 少年遊

歎老

東川去去不曾休。餘景爲誰留。前人不返，後者將發，今古一場秋。夕陽掛在西山頭。招悵倚孤樓。一枕黃梁，孰脩孰短，衰柳自風流。

이 用里의 少年遊는 본래 雙調 50字, 前段 5句 3平韻, 後段 5句 兩平韻體에 따른 것이기는하나, 後段 第1句에 押韻되어 있어 破格的이다. 少年遊는 그 詞體가 異例적으로 多樣하지만 어떤 體의 경우라 하더라도 後段 第1句에는 押韻하지 않는 것이 原則으로 되어 있다. 또 用里의 이 詞는, 詞體는 다르지만 柳永의 日高花樹詞를 參考한 痕跡이 있다. 柳詞는 다음과 같다.

少年遊

柳永

日高花樹嬾梳頭。無語依妝樓。修眉斂黛，遠山橫翠，相對結春愁。王孫走馬長

楸陌，貪迷戀、少年遊。似恁疎狂，費人拘管，爭似不風流。

用里詞의 前段 末句의 韻字인 “秋”는 愁의 뜻으로 쓰여진 것이다. 禮記의 “秋之爲言愁也.”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13] 鷓鴣天

梅花

鐵髓氷肌別樣姿。嬋娟月掛碧瑤枝。東風細拂紅粉臉，翠樓樓上舜玉妃。存標格，紉芳菲。獨將清節好護持。丁寧莫近山和尚，不許相侵水秀才。

鷓鴣天의 句法은, 後段 第1, 2句가 三言인 것 이외에는, 다 7言으로 마치 七言絶句를 포개 것 같다. 詞體는 雙調 55字, 前段 4句 3平韻, 後段 5句 3平韻 한가지 뿐이다. 原文에는 後段 第4, 5句 끝에 각각 “山鷓” “滇水虫名”이라는 雙行의 注가 있다. 山和尚과 水秀才의 뜻을 注明한 것이다.

이상 13調 15首는 말하자면 試作 내지는 習作에 속하는 것들이다. 대체로 보아 用里는 晩年에 가서 詞作에 손을 댄 것 같아서 그의 詞에는 修鍊이 잘 된 詩作의 技法이 適切하게 運用되어 있다. 詩와 詞는 技法에 있어 결코 同一한 것은 아니나 詩의 修鍊 없이 불만한 詞를 써내기를 期待하기는 어렵다. 이점은 淸 陳廷焯이 그의 白雨齋詞話에서 論及한 바도 있다. 그는 同書 卷7 第4則 및 第5則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詩詞一理。然不工詞者，可以工詩，不工詩者，斷不能工詞。故學詞貴在能詩之後。若於詩未有立足處，遽欲學詞，吾未見有合者。

古人詞，勝於詩則有之，未有不知詩而第工詞者。

이러한 見解는, 絶對的인 正確性을 지닌 것이라고 斷言하기는 어렵지 마는, 상당히 強力한 理由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否認할 수 없다. 詞는 詩가 全盛한 이후에 詩의 限界性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境地로의 轉變을 꾀한 끝에 開拓된 分野이므로 詞에는 基本되는 技法으로 詩의 그것이 상당한 정도까지 承繼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陳廷焯은 또 同

書 卷5 第91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昔人謂詩中不可著一詞語，詞中亦不可著一詩語，其間界若鴻溝。余謂詩中不可作詞語，信然。若詞中偶作詩語，亦何害其爲大雅。且如“似曾相識燕歸來”等句，詩詞互見，各有佳處。彼執一而論者，眞井蛙之見。

陳氏는, 詩에는 詞語를 容納할 수 없지만 詞에는 詩語가 쓰여져도 無妨하다고 본 것이다. 사실 詞는 句法의 多樣性和 口頭語的 表現의 導入으로 詩와 크게 달라진 것이지 詩語는 오히려 그 바탕이 되어있다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위에 나온 用里의 詞에는 疊字와 聯縣字가 의외로 많이 쓰여져 있다.

黃聲汝는 말하자면 用里에게 詞를 보내 挑戰한 사람이고 用里가 詞에 손을 댄 것도 어느점 그의 影響이 아닐까 하고 여겨지기도 한다. 두차례의 和贈詞는 應酬한 것이고 한차례의 贈詞는 用里가 挑戰한 것이다. 黃聲汝에 관해서는 알아볼 길이 없다.

<和贈黃聲汝>

〔14〕水調歌頭

詩酒諒非意，聊用破愁城。莫將時事干我，世已棄君平。粧點一區泉石，措置幾畦杞菊，歸臥小樓明。復得秋塘老，竿尺道深情。相思苦，夜向闌，斗西橫。前期那在別恨，如草拔還生。望裏蒼葭白露，曲裏高山流水，不是艷詩名。雨後南湖盛，歸夢也難成。

이것은 雙調 95字, 前段 9句 4平韻, 後段 10句 4平韻體에 따른 것이다. 이 水調歌頭는 長調임에도 꼭 能熟하게 다루어져 있다. 특히 前段에는 嚴君平으로 自處하는 心情이 悠然하게 表露되어 있다.

〔15〕白蘋香

酒熟春生竹葉，睡醒日上梅枝。箇中何物不宜詩。吾與白鷗爲喜。行藥趁時雨細，流觴約日溪肥。情人遮莫到遲遲。晚境賞心惟是。

白蘋香은 西江月の 別稱으로, 이 詞는 雙調 50字, 前後段 各4句 兩平韻 1叶韻體에 따랐다. 여기서 1叶韻이라 함은 前後段 末句의 韻을 同音의 仄韻字로 쓴 것을 말한 것이다. 西江月을 白蘋香으로 부르게 된 것은 唐宋交替期の 歐陽炯의 西江月詞 後段 末句에 “兩岸蘋香暗起”라는 句가 나와서부터이다. 歐陽炯의 詞는 다음과 같다.

西江月

歐陽炯

月映長江秋水，分明冷浸星河。淺沙汀上白雲多。雪散幾叢蘆葦。扁舟倒影寒潭裏，煙光遠罩輕波。笛聲何處響漁歌。兩岸蘋香暗起。

이 歐陽炯의 月映長江詞는 尊前集에 收錄되어 있다. 用里的 詞는 歐陽炯의 것에 比해 後段 第1句가 6言으로 되어있어 1字가 적다.

〔16〕望仙門

蘋風吹水水粼粼。所懷新。無穩坐客莫須嘔。草如茵。爲唱仙曲，教誰挽得青春。且將耕鑿頌天恩。頌天恩。何必帝王門。

雙調 46字, 前後段 4句 4平韻, 後段 5句 3平韻 1疊韻體에 따른 것으로, 다음의 晏殊詞를 參考한 것 같다.

望仙門

晏殊

玉池波浪碧如鱗。露蓮新。清歌一曲翠簪纓。舞華茵。滿酌蘭英酒，須知獻壽千春。太平無事荷君恩。荷君恩。齊唱望仙門。

다만 晏殊가 荷君恩을 노래한 것과 對照的으로 用里는 何必帝王門이라 하여 野人의 心境을 透露한 점이 다르다.

〔17〕江城子

榴花如惱柳如愁。境幽幽。所謂伊人，宛在水西樓。不是秋塘雲際在，雲起處，幾回頭。年光不爲老人留。水東流。未曾休。鳧渚鶴汀，修理一孤舟。欲訪蓬壺仙子去，從我者，有誰不。

雙調 70字, 前後段 各7句, 5平韻體에 따랐다. 不字를 尤韻으로 쓴 것이 눈에 뜨인다. 江城子是 30餘字의 單調體가 몇가지 있고 雙調는 이 70字體 한가지가 있을 뿐이다. 雙調平聲體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蘇軾詞를 標準으로 삼는다.

江城子

蘇軾

鳳凰山下雨初晴。水風清。晚霞明。一朵芙蓉、開過尚盈盈。何處飛來雙白鷺，如有意，慕娉婷。忽聞江上弄哀箏。苦含情。遣誰聽。烟斂雲收、依約是湘靈。欲待曲終尋問取，人不見，數峰青。

[18] 大江東去

溪西一別，又忙忙，度盡黃梅時節。滿地江湖，無限水、除非羽毛難越。柳外平沙，巖頭殘日，誰勸盃中物。境留人遠，欲添千丈華髮。安有別無故人，問君能見幾夕團團月。想得秋塘，塘上樹、酒一書和翁一。我欲明朝，抱琴去奏看，客清三絕。且須休道，世間萬話千說。

大江東去는 念奴嬌의 別稱으로, 雙調 100字, 前段 9句 4仄韻, 後段 10句 4仄韻體에 따른 蘇軾의 有名な 大江東去詞가 그 標準이 되고 있다. 用里의 이 詞도 蘇詞體에 따른 것이다. 다만 後段의 第2·3句의 句法이 5·4로 나누어져야 하는데 用里의 것은 文意上으로 그렇게 나누기 어렵고 나눈다면 역시 4·5 또는 6·3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밖에도 後段의 句法에 文意上으로 다소 無理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다.

<贈黃聲汝>

[19] 長相思

送春

風飄飄。雨飄飄。雨雨風風春已凋。流光竟孰招。山迢迢。水迢迢。水水山山路更遙。相隨到遠橋。

雙調 36字, 前後段 各4句 3平韻 1疊韻體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白居易의 汴水流詞와 同體인데 前後段의 造句上의 對應에 더욱 巧

致를 나타낸 것이다.

長相思

白居易

汴水流。泗水流。流到瓜州古渡頭。吳山點點愁。思悠悠。恨悠悠。恨到歸時方始休。月明人倚樓。

[20] 蝶戀花

惜花

忽忽春光忙似許。百舌多情，悽向枝間語。從此紅粧無覓處。不知去作誰家旅。悽絕香情疇若侶。塞外王嬌，帳裏虞家女。不盡分張千萬緒。夕陽欲下江南樹。

雙調 60字, 前後段各5句 4仄韻體에 따른 것으로, 다음의 馮延巳의 六曲闌干詞와 同韻同體다.

蝶戀花

馮延巳

六曲闌干偎碧樹。楊柳風輕，展盡黃金縷。誰把鈿箏移玉柱。穿簾海燕雙飛去。滿眼遊絲兼落絮。紅杏開時，一霎清明雨。濃睡覺來鶯亂語。驚殘好夢無尋處。

[21] 千秋歲

秋千

彼嬋媛女。也是神仙侶。燕似蹴，蝴似舞。雙鉤黃柳幹，百尺青絲縷。飛向上，今宵定闢瑤皇府。蹀躞凌虛武。快活培風羽。翾上下，浮來去。超臨飛鳥背，過批雙梧輔。人已散，一梭殘月空懸樹。

이 千秋歲는 雙調 71字, 前後段各 8句 5仄韻으로 되어있는데, 正譜의 各體와는 若干의 出入이 있다. 正譜로는 前後段 各8句體는 71字 各6仄韻으로 되어 있고, 前後段 各5仄韻體는 72字, 前段7句, 後段8句로 되어있다.

<和贈黃聲汝>

[22] 念奴嬌

咏梅

化工多事，巧粧出，樹樹名花紅白。獨有寒梅，清到骨、厭殺他風流客。月下佳人，山中高士，襟韻無相隔。貞姿孤標，待他滿天風雪。許爾加百花頭，東風休遣，無賴貪香蝶。暗與詩人眞境會，清淺水黃昏月。驛使朝行，珠人夜返，從此芳

緣歇。憑君寄意，不是情人那折。

이 念奴嬌는 雙調 100字, 前後段 各10句 4仄韻體에 따른 것으로, 다음의 蘇軾의 憑空眺遠詞와 同韻同體다.

念奴嬌

蘇軾

憑空眺遠，見長空萬里，雲無留迹。桂魄飛來光射處，冷浸一天秋碧。玉宇瓊樓，乘鸞來去，人在清涼國。江山如畫，望中煙樹歷歷。我醉拍手狂歌，舉杯邀月，對影成三客。起舞徘徊風露下，今夕不知何夕。便欲乘風，翻然歸去，何用騎鵬翼。水晶宮裏，一聲吹斷橫笛。

[23] 江南好

咏月

問爾盃中月，何術到長天。愛看清影孤坐，遙夜抵過年。若使明光長照，更有情親同賞，勝似玉樓寒。方死方生理，天宇似人間。歌聲亮，舞影亂，未成眠。疇千磨汝，冰如清瑩鏡如圓。悵悵江南遠別，寂寞回廊獨轉，造化苦無全。多是有情物，隨處向人娟。

이 江南好로 提示된 詞調名은, 水調歌頭的 別稱으로 쓰인 것이다. 이것은 詞律14 水調歌頭 題下注에 吳文英이 江南好로 稱했다고 한데서부터 시작된 誤解로 말미암은 것이다. 吳文英은 滿庭芳을 江南好로 稱한 바 있다. 이 問爾盃中月詞는 雙調 95字, 前段 9句 4平韻 兩仄韻, 後段 10句 4平韻 兩仄韻體에 따른 다음의 蘇軾의 明月幾時有詞에 次韻한 것이기는 하나 前後段의 兩仄韻은 看過하여 버렸다.

水調歌頭

蘇軾

明月幾時有，把酒問青天。不知天上宮闕，今夕是何年。我欲乘風歸去(換仄)。又恐瓊樓玉宇(叶仄)。高處不勝寒。起舞弄清影，何事在人間。轉朱閣，低綺戶，照無眠。不應有恨，何事常向別時圓。人有悲歡離合(換仄)。月有陰晴圓缺(叶仄)。此事古難全。但願人長久，千里共嬋娟。

[24] 南鄉子

泛彼掘頭船。直欲窮源水盡天。遙憶故人人不見，惘然。夜久西望月一川。急景

似張紘。莫以吾無坐客。博奕劇知非勝事，猶賢。何必逃名似魯連。

雙調 56字，前後段各5句 4平韻體에 따른 것이다. 副題는 없으나, 밤중에 친구를 생각하며 하다못해 그가 자기를 찾아와서 마주앉아 博奕이라도 같이 놀았으면 하는 마음을 吐露한 것으로, 黃聲汝를 邀請하는 뜻을 비친 內容이다.

[25] 望秦川

爲送乘槎客，同來坐石床。旋將離恨滿衰腸。願把一江春水、較誰長。 花節無晴景，書樓易夕陽。不如歸飲樂天觴。會意秋塘歌送、月明章。

望秦川은 南歌子の 別稱이다. 이 爲送乘槎客詞는 雙調 52字，前後段各4句 3平韻體에 따른 것으로, 다음 毛熙震의 惹恨還添恨詞와 同韻同體다.

南歌子

毛熙震

惹恨還添恨，牽腸卽斷腸。凝情不語一枝芳。獨映畫簾閒立、繡衣香。 暗想爲雲女，應憐傅粉郎。晚來輕步出閨房。髻慢釵橫無力、縱猖狂。

<玉淵諸勝>

[26] 青玉案

玉淵亭

玉淵之水澄如滌。綠漾漾、山光滴。亭上游人今已昔。蘿陰侵戶，荷香繞檻，脩竹千竿碧。 回看千尺芙蓉壁。客去孤橫畫中艦。乞與奇觀來者覓。雲歸巖竇，雨過沙觜，月印寒潭白。

雙調 67字，前後段各6句 4仄韻體에 따른 것이다. 玉淵亭과 그 周圍의 景觀을 여러모로 써낸 것이다. 이 青玉案을 포함한 8首는 玉淵 周邊의 8處의 勝景을 써낸 寫景詞다.

[27] 臨江仙

謙巖亭

憶昔謙翁經始日，雲霞一畔巖樓。至今檻外水東流。半江疎雨裏，漁棹不勝秋。

二百年中忙浩劫，前塵欲問沙鷗。雙飛無語向重洲。溯洄人不見，日落畫橋頭。

雙調 60字, 前後段 各5句 3平韻體에 따른 것이다. 樓亭을 처음 세운 사람을 생각하는 懷古의 情을 곁들여서 景物을 써내는 技法을 썼다.

〔28〕望江南

芙蓉臺

臨江曲，石氣近人情。玉削芙蓉山欲活，錦粧楓荻水偏明。綽約畫中幀。登高頂，雙屐入雲輕。百尺崖將秋色動，四郊烟和夕陽平。身在閩風城。

望江南은 憶江南의 別稱이다. 이 臨江曲詞는 雙調 54字, 前後段 各5句 3平韻體에 따른 것이다.

〔29〕南柯子

桃花遷

缺塢和雲築，危蹊掛樹斜。巖階寥閭少人過。幾度春風、開落碧桃花。紅墮棲林雨，明生滿水霞。任他飛去逐流波。縱有漁舟、終是斷崖何。

南柯子は 南歌子の 別稱이다. 이 缺塢和雲築詞는 雙調 52字, 前後段 各 4句 3平韻體에 따른 것이다.

〔30〕西江月

望月臺

石逕穿雲通屐，檜陰移日臨門。荒臺客去自黃昏。祇有蒼江明月。柳外川晴歸帆，林端烟盡孤村。秋宵如水定人喧。唐突雙清誰喝。

이 石逕穿雲詞는 西江月 중에서도 독특한 雙調 50字, 前後段 各4句 兩平韻 1仄韻體에 따른 것이다. 前後段 末句는 仄韻으로 叶韻하는 것인데 이 詞는 前段은 月, 後段은 喝로 각각 받아서 극히 無理하다. 用里는 前後末句를 照應시켜 叶韻한 것이다. 이 體는 다음 柳永의 鳳額繡簾 詞를 正體로 삼는다.

西江月

柳永

鳳額繡簾高卷，獸鑲朱戶頭搖。兩竿紅日上花梢。春睡慳慳難覺。好夢枉隨飛絮

，閒愁濃勝香醪。不成雨暮與雲朝。又是韶光過了。

[31] 定風波

凌波臺

葉落江楓設野臺。洪濤無日不風雷。遇壁春撞謾費力，其奈，石欄千仞碧崔嵬。

伊者豐原柳相國，不負，山南雲水錦衣回。猶有當時三印石，休遣，東風雨灑綠生苔。

雙調 62字，前段 5句 3平韻，後段 6句 兩平韻體에 따른 것이다. 定風波의 諸體 중에는 이 體가 가장 平易하다.

[32] 巫山一段雲

達觀臺

壁斷懸秋色，臺荒臥水聲。晴沙歷歷淨如瓊。分與白鷗盟。 遠岵雲蒼現，飛泉石齒明。凌波一闋夕潮生。歸帆月并行。

雙調 44字，前後段 各4句 3平韻體에 따른 것이다.

[33] 風入松

萬松洲

滄洲踏盡日西顛。修理渡頭船。亭亭澗樹三千本，碧杖屨、篩月籠煙。飛節蟠龍幾尺，倒枝棲鶴何年。 清如磬釋老如仙。疎影渡長川。邊憐百卉風霜後，同汝者、梅士竹賢。分付蒼江白鷺，不教閒雀來眠。

雙調76字，前後段 各6句 4平韻體에 따른 것이다.

用里詞 33首를 우선 이상과 같이 整理하여 보았다. 用里先生은 바로 高柄翊教授의 曾祖父로, 家傳의 用里集을 閱覽시켜준 高教授의 好意에 感謝하는 바이다.

Material

A Study of *Nokri Tz'u*

Cha Chu Whan

The *tz'u* works of *Go Sŏng-gyom* (1810-1886), one of the Korean 'hermit literati', which amount to 35 songs after 29 tunes, are studied with scanning, evaluation and explanation of tunes concerned. Life of the Author is also briefly introduced.